

31

요나야, 일어나 가서 외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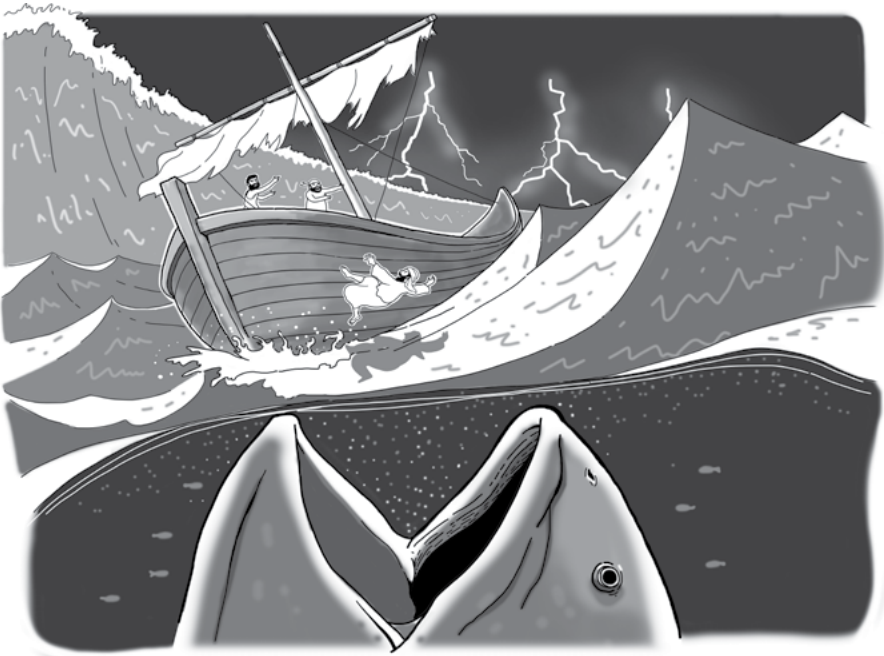
욘 1~4장

찬송가 266장 (왕의 명령 전달할 사자여), 찬양 89장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배울



1.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압니다.
2.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잃어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욘 4:9~11)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임이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고전 9:16~17)



을 이해하기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 도시의 죄악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했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멸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요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라도 하는 날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옴바로 도망가서 다스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심한 폭풍을 일으키셨고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선장과 무리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했는지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요나가 뽑혔고, 선원들은 본의는 아니지만 요나의 요청에 따라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그를 통째로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육지로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 하룻길을 돌아다니며 ‘니느웨가 40일 후에는 멸망 당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요나가 바랐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금식을 선포하고 굶은 배움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킨 것이 죽고 싶을 만큼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일깨우셨을까요?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욘 1:2)

Arise, go to Nineveh, that great city, and cry out against it: for their wickedness has come up before Me. (Jn 1:2)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니느웨는 앗수르의 수도로 우상숭배와 영적 교만함이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도시에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고 답해 봅시다.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속으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려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를 적어봅시다.

2

요나는 앓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요나서에서 찾아보고 순서를 정리해봅시다.

- ㉠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 ㉡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 ㉢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삼일 삼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 ㉣ 요나가 여호와와 다투는 것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옴바로 내려갔더니
- ㉤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 ㉥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 ㉦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순서 :

3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자인 내가 가질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시 139:1~8, 고전 9:16)?

4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나오게 하여 니느웨에서의 전도를 다시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영혼은 존귀합니다. 앞으로 내가 주변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적어봅시다.

나의 태도 :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103:12~13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의

시 144:3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잠 24:11~12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사 57:16

↓

고전 9:16

↓

엡 5:14

↓

딤후 4:2



개를 통한 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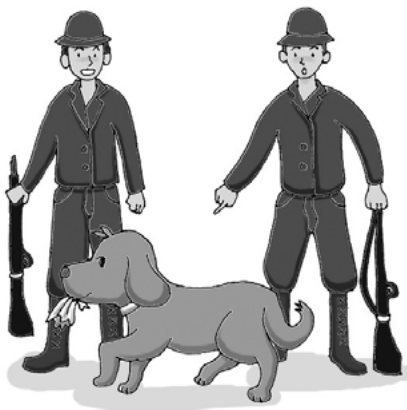
중국 산둥성 출신 병사들이 상해에 주둔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입에 책의 속지 몇 장을 물고는 주둔지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쫓아가 그것을 빼앗아서 읽어보았는데 그것은 성경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병사들은 개의 뒤를 밟아 주둔지 근처에 있던 기독교 병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찾아든 그들은 개에게서 빼앗은 성경의 속지를 내보이며 이런 종류의 책이 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환영을 받으며 성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의 결과로 고포드 박사와 중국인 선교사 한 명이 그 부대를 방문하게 되었고 많은 병사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개의 입까지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시겠습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질문 있어요~



‘영원한 속죄’에서 ‘영원’은 긴 시간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인가요? 아니면 4차원적인 ‘시간을 초월한 무한한 기간’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인가요? 성경에는 ‘영원히’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음의 말씀처럼 긴 시간을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 1:4)

또 하나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도다” (살후 1:9)

이와 같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질문과 같이 “영원한 속죄”(히 9:12)에서의 영원은 “세상 처음부터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속에서는 속죄가 필요 없겠지요? 하지만 전도집회 때 설명하는 두 가지의 영원의 개념은 영원한 속죄가 얼마나 크고, 완전하고 확실한 사실인지를 말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고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